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1990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경향

金秀珍* · 韓明淑

네오나토 상품기획실*,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과 교수

Chronological Trends of Fashion and Make-up in 1990s for the Next Millennium

Su-Jin Kim* and Myung-Sook Han

Merchandiser, NeoNato Corporation*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ang Myu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서론

II. 메이크업과 토탈패션

III. 1990년대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 분석

1. 전통적 에콜로지(1990~1994)

2. 세기말적 다양성의 시도(1995~1997)

3. 미니멀적 네오에콜로지 /
로맨티시즘으로의 연착륙
(1998~2000)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 of fashion and make-up in 1990s and their relevancy to each other. Based on the chronological analysis, we propose a new category for the fashion and make-up trend in 1990s, which is 1) traditional ecology period(1990~1994), 2) versatile trial or decadent period(1995~1997), and 3) soft landing period based on the minimal neo-ecology and romanticism(1998~2000).

Between 1990 and 1994, there was no differentiation in seasons. It appeared that spring /summer and fall /winter trend have had no big differences. At the beginning in 1990s, it was basically based on ecology concept that emphasizes the natural image.

However after 1995, seasonal differences in trend are appeared and there were various make-up designs. The trends of spring /summer in 1996 could be named as color revolution period that emphasized the unique and individual expression of each person. In 1997, black, pastel, and brown colors were the result of reinterpreting the classic and sexy images of 1960s to natural and modernistic image of 1997. Purple color started to be introduced to us. In 1998, pastel tone, pink, and purple color expresses the glamorous look based on the romantic feminism. S/S of 1999 is mainly represented by minimalism and avant garde.

For fall/winter trends, brown color lines make-up comes to mix with romantic image and developed into wine, orange, neon colors in 1995 and 1996. These colors were the symbol of prosperity and sentiment. Gold make-up emphasizing the eye area was the tendency of that period. In 1997, the fear of coming end of century was expressed as decadent image. At that time, ethnic and romantic image appeared with vivid color lines, gold, red and violet. In 1998, romanticism was popular again with modernism and ethnic mood. It expressed the romantic elegant image. The trend has returned to the ecology mood again in 1999. This ecology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cology. It adds a sophisticated feeling and sporty fashion. To express natural and sporty image, they choose pink blush.

In coming 2000 as a new millennium, the yellow color will be main the stream to express vision, dream, and happiness in both fashion and make-up as an accent color. The minimal design and minimal tools will be used for the design and make-up,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fusion concept will dominate the fashion and make-up industry in the globalized and boundariless age.

Through this paper, we hope that make-up can be accepted as a part of total fashion in its relationship with other elements such as shoes, clothes and accessory and that it can be considered as a independent art that has direct influence on people and industry.

I. 서론

토탈 패션(Total Fashion)이란 메이크업을 비롯하여 헤어스타일, 의상, 모자, 구두, 악세사리 등 인체 전반에 행해지는 모든 것이 각 시대의 미의식에 의해서 형성된 유행경향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¹⁾

패션은 원래 인위적인 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의상이나 화장, 가구, 생활양식, 상품디자인, 미술상의 각종 스타일, 음악형식, 사상경향 등에 넓게 적용된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의상과 화장은 인체를 장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 화장품 산업의 발달과 함께 메이크업이 토탈패션 개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세기의 현대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복잡하고 대중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타인과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서로의 안면인자를 떠난 대인관계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토탈패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패션경향과 메이크업 경향을 연도별, 계절별로 분석하여 양자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밀레니엄의 패션경향에 따라 메이크업 경향을 예측,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메이크업이 토탈패션의 한 요소로서의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제반 요소들간의 상호 조화속에서 보다 더 발전된 양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중과 직결되어 있는 총체 예술로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패션과 메이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으로 여러 패션연구소에서 계절마다 발표된 세계의 패션 자료 및 각종의 패션잡지들을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패션 경향 및 메이크업 경향의 분석을 위하여 인터패션플래닝(Interfashion Planning), 삼성패션산업연구원(Samsung Fashion Institute), 코오롱 패션산업연구원(Kolon Fashion Institute)의 보고서와 1990년 1월호부터 1999년 10월호까지의 패션 투데이(Fashion Today), 패션리더(Fashion Leader), 섬유저널, ELLE Vogue 저널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복식의 연구에

1) 강병석, "토탈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1.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며 선행 연구로는 '메이크업의 동·서양의 변천사' 연구(송민정, 1991; 조은별, 1996), '메이크업과 광고'를 연결시킨 연구(유선아, 1995; 이주영, 1994), '이론적 바탕 위에서 메이크업의 조형성을 실제로 작업'하여 제작한 연구(이화순, 1992; 박정훈, 1990) 등이 있을 뿐이다. 그 외에 강병석과 유선아가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해서 연구한 바 있는데 강병석은 '80년대의 패션 및 메이크업의 경향을 파리 쁠레타쁘르페와 화장품 메이커에서 계절마다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선아는 '90년대 전반기의 패션 및 메이크업의 경향을 각종 패션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와 『테평양 50년사』라는 한 권의 단행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1997년까지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김수진, 한명숙, 1998), '90년대 후반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장미숙, 양숙희, 1999) 등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토탈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토탈 패션의 개념에서 보면 메이크업은 별개의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원하는 이미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제요소들 중의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을 토탈패션의 한 요소로서 다루었다. III장에서는 1990년대를 시대순으로 계절을 나누어서 연대기별로 메이크업의 경향이 전체적인 패션 경향에 부합되는지를 기술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메이크업 이미지 및 패션동향에 따라 1990년대를 1) 전통적 에콜로지(1990~1994), 2) 세기말적 다양성의 시도(1995~1997), 3) 미디어적 네오에콜로지/로맨티시즘으로의 연착륙(1998~2000) 라는 3단계로의 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메이크업과 토탈패션

토탈 패션이라는 관점에서, 메이크업의 개념은 얼굴 화장에 국한되지 않으며, 복식(服飾)과 더

불어 총체적인 치장을 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현재의 패션은 머리형태, 화장 등과 함께 전체적 조화가 중시되는 토탈패션화 되어가고 있으며 외관상의 통일미(美)를 이루는데 있어서 메이크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내적·외적으로 자신의 개성에 맞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화를 고려한 질서있는 연출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복장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악세사리 등을 잘 활용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성을 표현한 아름다운 모습이 토탈 패션의 기본인 것이다. 즉 의(衣)생활에 있어서 토탈 패션의 기본원리는 의복 뿐만 아니라, 악세사리와 소품, 모자, 핸드백, 구두에까지 전체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개성에 어울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²⁾. 그 중 메이크업은 토탈 패션으로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질서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시대가 세기말이어서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의(ism)가 복잡·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지극히 다원화된 반면, 발달된 매스미디어로 인하여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생활양식(life-style)을 지니게 되었다.³⁾

대중사회로의 이행은 대중매체(mass media)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대중매체의 발전은 한편으로 대중 사회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서적, 잡지, 음반, 영화, 라디오, TV 등의 대중매체는 기술의 발전, 인구의 급증, 광고의 도입 등으로 더욱 저렴하게 대량으로 보급되었으며 누구나 이를 손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생활용품의 소비를 자극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문화 수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개인의 소외나 아노미(anomie), 고립을 극복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으로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특히 패션잡지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증가는

2) 小川茂登子, *Fashion Coordination*, 박정훈, 전제논문, p.4에서 재인용.

3) 안향신,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 상징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색채경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2.

이상적인 미를 현실생활에 반영하게 하였다. 즉, 대중매체는 유행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달 수단이었으며 메이크업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메이크업은 단순히 외적인 치장에서 나아가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인간의 내면까지 관리하는 사회심리학적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계속 증가되어 왔다.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화장품의 시장규모는 미화 62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이 각각 250억 달러 정도로 전체 시장의 34%정도씩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이 150억 달러로 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⁴⁾

화장품 산업의 발달과 동시에 의복 산업의 발달로 복식의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조화를 피하는 토탈 패션의 경향이 나타나서 의복 하나하나의 형태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통일된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메이크업 또한 토탈 패션의 개념하에서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복잡하고 대중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은 타인과 매우 빈번한 교류를 통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개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위로 중요시되는 얼굴은 서로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인간의 얼굴에 직접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토탈 패션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화장품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면서 메이크업은 본격적으로 의복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천하였다. 1930년대는 얇고 정교하게 그려진 긴 눈썹 화장과 길고 날씬한 의복 실루엣의 조화가 유행이었다. 1960년대의 인위적인 속눈썹, 기하학적인 메이크업의 유행과 젊음의 대담하고 실험적인 의상의 전개 등 메이크업과 의복은 상호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감각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흐름은 메이크업만의 독자적인 변천이라기 보다는 의복 혹은 그 밖의 외모를 이루는 모든 요소와 함께 각 시대에 따른 미의식을 반영하며 그 표현방법 및 색상

이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은 젊음과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각 계절마다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유행색 협회와 소재전을 통해 패션 및 메이크업의 유행 경향이 미리 정해지며 그 변화 또한 가속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정보화와 국제화된 세계속에서 각 계절의 의복의 경향과 그 색상이 어울리는 메이크업의 표현방법과 조화로운 색상이 미리 예측되어 인터넷, 매스컴, 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로써 오늘날의 메이크업은 토탈패션을 추구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겠다.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문화로서 뚜렷한 특성을 지닌 메이크업은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Ⅲ. 1990년대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 분석

토탈패션에서 메이크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간의 색상에 의한 조화이며, 다음이 형태적 조화이다. 이 단원에서는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이러한 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990년대의 토탈패션을 메이크업 이미지 및 패션 동향에 따라 1) 전통적 에콜로지, 2) 세기말적 다양성의 시도, 3) 미니멀적 네오에콜로지/로맨티시즘으로의 연착륙 3단계로 구분한다.

1. 전통적 에콜로지 (1990-1994)

1990년대 초반은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에콜로지 대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계절적인 차이가 거의 없고, 패션 및 메이크업의 일관된 에콜로지 경향을 보인다. 에콜로지 혹은 자연적 이미지(Natural Image)는 몸을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으로, 가공되지 않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미를 강조하는 패션 개념이다.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 패션으로서 자연스러운 맛을 내기

4) 조은별, 전개논문, p.9.

<표 1> 전통적 에콜로지 (1990-1994)

	패션	메이크업	패션과 메이크업
'90	· 에콜로지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주의를 통한 인간존중의 추구	· 파스텔 색상 및 갈색이 주조색	· 에콜로지의 패션경향에 따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파스텔 색상군과 자연주의를 주제로 하여 갈색이 주조색
'91	· 도회지 여성의 자유로움과 세련됨을 추구	· 높은 채도의 색상 및 필이 가미된 회색과 분홍색 등으로 우아하면서 이지적 이미지 연출	· 도회지 여성의 자유스러움을 표현한 패션경향에 따라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움속에서 느껴지는 관능미와 화려함을 추구
'92	· '60, '70년대의 복고풍 · '40년대 영화의 남성복, 노르딕, 전통적 이미지	· 분홍, 주황, 노랑 등의 난색계열 입술에 회색빛이 가미된 눈화장 · 풍부한 감각 표현	· '60, '70년대의 복고풍의 패션경향에 따라 난색계열의 색상으로 '60년대의 생동감 및 환상적 분위기 재현 · 갖가지의 이미지 추구에 따라 메이크업의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 표현
'93	· 여성적인 길고 가는 선에 탁하고 깊은 색조의 '40년대풍	· 둥글고 가는 얇은 눈썹선에 도톰한 입술(와인색)	· 40년대 스타일의 패션이 전개됨에 따른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한 메이크업
'94	· 길고 가는 선의 민속풍 이미지에 차가운 에콜로지론으로 인한 현대적인 느낌	· 민속적이고 자연의 색상이 부각(난색계, 빨강)	· 갈색, 빨강, 자주, 다양한 파랑으로 인해 동양적 이미지의 민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표현

위한 실루엣이나 천연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감각의 신선한 여성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자연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색상으로 자연적 이미지를 구현해 낼 수 있다. 자연적 이미지의 패션은 믹스 매치(mix-match)로 표현되는 바지 위에 긴 재킷이나 긴 베스트를 조화시켜 입음으로써 자연스러움을 표현한 디자인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에콜로지(ecology), 원시(primitive) 등의 분위기가 여기에 속한다. 유사색의 조화 및 동류색의 색 조화를 이용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활동적인 생기에 넘치는 이미지가 연출된다.

주황색계열 및 갈색계열의 색상이 자연적 이미지의 주조색상이 된다.

1990년의 패션은 에콜로지풍으로 부드럽고 자

연스러운 파스텔 색상과 자연주의를 주제로 하여 갈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다.

1991년에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됨을 추구한 패션경향에 따라서 필이 가미된 회색과 분홍 등으로 우아하면서도 이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현대적 빨강과 도사적 파랑으로 도회지 여성의 자유스러움을 표현한 패션경향에 따라서 메이크업은 높은 채도의 색상으로 자연스러움속에서 느껴지는 관능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연출하였다.

1992년 봄/여름(S/S)에는 '60, '70년대의 복고풍의 패션경향에 따라서 분홍, 주황, 노랑 등의 밝고 따뜻한 난색계열의 색상으로 '60년대의 생동감 및 환상적 분위기로 재현하였다. 또한 가을/겨울(F/W)에는 '40년대 영화의 차분한 남성복

이미지, 노르딕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classic image)를 패션에서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메이크업에 있어서 풍부한 감각을 표현하여 지적이며 우아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전통적 이미지(classic image)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의상들이 나타내는 이미지이다. 성공이나 부를 나타내 주는 이러한 이미지는 비즈니스 여성에게는 성공을 기약해 주는 이미지이다. 패션에서의 전통은 유행에 관계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입혀지는 특정한 스타일의 의상으로서 테일러드 슈트(tailored suit), 샤넬 슈트(channel suit), 카디건(cardigan), 진바지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우아한(elegance), 보수적(conservative), 전통적(traditional)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1993년에는 '40년대풍의 탁하고 깊은 색조의 패션경향에 따라서 메이크업에서는 둥글고 가늘고 얇은 눈썹선에 도톰한 입술을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성적인 길고 가는 라인의 '40년대 스타일의 패션이 전개됨에 따라서 포도주색의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패션에 있어서 1994년은 민족풍의 길고 날씬한 선이 유행하여 민족적 감각의 갈색, 빨강색, 자주색과 다양한 색조의 파랑이 유행색이었는데, 메이크업에서도 이러한 색상으로 동양적 이미지의 민족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패션에서의 빨강색의 유행이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쳐 '50년대의 관능적인 스타일인 붉은 입술의 깨끗한 피부가 메이크업 유행의 경향이 되었다. 이러한 민족풍의 이미지(Ethnic Image)는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 의상과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문양, 자수, 장산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을 민족풍이다.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경우가 많으며 토속적이며 소박함 느낌을 준다. 민족풍 디자인에 영감을 준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근동의 종교의상, 잉카의 기하학적인 문양, 인도네시아의 바티, 인도의 사리 등이다. 최근 북유럽 유목민문화에 근거한 노르딕(nordic)패션 및 문신을 상화시킴 이미지가 이에 속한다. 민족풍의 이미지에는 동양(orientalism), 이국풍(exotic), 열대(tropical) 등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패션이 포함된다. 이 이미지의

색상은 빨강과 황금빛으로 대표된다.

2. 세기말적 다양성의 시도 (1995-1997)

이 시대는 계절적인 차이가 극명함과 동시에 다양한 세기말적인 시도가 두드러진다. 계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1995년 봄/여름(S/S)에는 패션에서 '30~40년대의 복고풍의 패션경향으로 이에 어울리는 밝은 얼굴톤에 가느다란 곡선의 진하고 긴 눈썹에 눈매의 강조 메이크업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위한 분홍과 장미계가 메이크업 색상 경향이었으며 가을/겨울(F/W)에는 자연적 감각이외에 낭만적인 감각이 나타났으며 고도의 과학기술(테크노)과 자연과의 조화가 패션의 테마로 등장했다. 또한 진의 유행과 밀리터리 감각의 등장으로 어두운 녹색, 보라색, 빨강색 등이 유행 색상으로 등장하였으며 진의 유행으로 다채로운 파랑색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1996년 역시 계절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S/S의 패션에서 유머, 아이러니, 현대주의라는 3차원의 주제가 제안되었는데 메이크업에서는 달콤한 파스텔, 어두운 색조가 현대적으로 연출이 되었다. 패션에서는 자연을 느끼게 하는 과학기술을 표현하려 하였으며, 메이크업은 인공색상인 녹색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색상과 인공색상의 조화로 색감을 살아나게 했다. 또한 F/W에는 우아한 동시에 지적인 느낌을 지향하는 패션경향에 따라 '95년에 이어 황금색이 주요 색상이 되었다.

패션과 메이크업에 있어서 1997년에는 다양한 양상이 동시에 경향으로 나타났다. S/S에는 과거의 우아함 지향으로 '60~70년대 비틀즈의 모즈룩을 재현함에 따라서 '60년대 전통적인 분위기의 메이크업이 추구되었으며, 모즈의 검정색과 흰색으로 과거의 이미지를 연상시킨 패션경향에 따라서 검정색 메이크업과 검정과 흰색으로 이루어지는 그래픽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또한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로 미니멀리즘과 낭만주의를 표현하는 패션경향에 따라 메이크업에 있어서 분홍, 주홍, 파랑, 녹색 등의 파스텔 색상과 갈색이 강세였으며 자주와 보라가 등장했다. F/W에는 세기말의 퇴폐적 이미지로서 메이크업에서 진한 보라 등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가 경향이

<표 2> 세기말적 다양성의 시도 (1995~1997)

	패션	메이크업	패션과 메이크업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40년대 복고풍 · 자연적 감각과 낭만적 감각 · 진의 유행, 밀리터리 감각 · 고도의 과학 기술(테크노)과 자연과의 조화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은 얼굴톤에 가느다란 곡선의 진하고 긴 눈썹에 눈매와 아이홀이 부각 · 파랑색, 금속느낌의 황금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차이가 뚜렷 · '30, '40년대의 복고풍으로 이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경향 · 진 아이템의 유행과 밀리터리 룩의 등장으로 어두운 녹색, 보라, 빨강 등이 유행색으로 등장. · 진의 유행으로 다채로운 파랑이 유행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느끼는 기술 과학 · 유머, 현대주의, 아이러니 · 깨끗함, 도심, 완벽함 추구 · 우아한 동시에 지적인 이미지 · 인공색상적인 녹색 · 파스텔, 어두운 색조 등이 현대적으로 연출 · 황금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년대의 만화이미지와 순수·유머를 추구하려는 패션경향에 따라서 메이크업은 바로크적 과장됨과 부르조아적 고급스러움 추구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70년대의 모즈룩 · 최소주의와 낭만적 이미지 · 세기말적 퇴폐적 이미지 · 민속적이며 낭만적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이미지 · 그래피즘 메이크업 · 파스텔 색상과 갈색의 강세 · 자주와 보라의 등장(어두운 색조) · 검정 눈썹, 붉은 입술과 볼 화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주의와 낭만주의의 큰 줄기에 '60년대의 전통적이고 요염한 스타일을 현대적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내었으며 검정과 흰색, 파스텔 색상, 갈색이 강세

있으며, 민속적이며 낭만적인 이미지의 패션에 따라 볼화장이 재등장하였으며 황금빛과 붉은 입술 등으로 동양적 분위기의 중국풍 메이크업, 황금빛, 빨강색, 갈색, 살구색 등으로 아프리카의 회귀풍과 검정 눈썹에 붉은 입술, 윤기있는 뺨이 가미된 입술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갔다.

낭만적 이미지(Romantic Image)는 공상적이며 꿈을 좇는 듯한 여성스러운 분위기로서,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소녀적인 느낌의 패션을 말한다. 주로 부드러운 질감의 꽃무늬와 민속풍의 기하학적 무늬를 사용하며, 색상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산뜻한 색상이나 열대지방의 감미로운 색조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자인에 프릴이나 레이스 장식 및 감각으로 표현된 장식적인 부분을 사용

하면 소녀적 취향을 느끼게 한다. 낭만적 이미지에는 향수(nostalgic), 순수(innocent), 환상(fantastic), 여성스러움(feminine), 부드러움(soft), 젊음(youthful) 등과 같은 분위기의 패션이 포함된다. 메이크업에서는 보색의 조화를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색의 조화나 동류색의 조화를 시도한다.

3. 미니멀적 네오에콜로지/로맨티시즘으로의 연착륙 (1998-2000)

1998년 이후 패션/메이크업 경향은 계절의 변화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새로운 에콜로지, 로맨틱시즘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게 된다.

<표 3> 미니멀적 네오에콜로지 / 로맨티시즘 으로의 연착륙 (1998~2000)

	패션	메이크업	패션과 메이크업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만적 경향 바탕에 현대주의와 민속풍의 표현 · 분홍색으로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미빛 뺨의 자연스러우면서 엘레강스한 이미지연출 · 인간의 감성을 지닌 로맨틱 /엘레강스를 분홍의 빛으로 이미지화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운 양상과 눈에 띄지 않는 정교한 부드러움을 주제로 자연적이며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안정적인 미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된 얼굴에 자연스러운 분홍빛 톤으로 투명감있게 분색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움과 스포티함을 상기된 얼굴로 표현하여 세련되면서도 소박하고 섬세한 촉감으로 표현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관주의가 주류를 이루며 내추얼리즘, 미니멀리즘이 메가 트렌드이다. · 오리엔탈리즘 경향으로 차이나 칼라, 기모노 슬리브, 여밈 등의 디테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의 최소화로 얼굴의 윤곽만을 표현하여 수수함과 편안함을 추구 · 가벼운 핑크, 바이올렛으로 blush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추얼리즘과 미니멀리즘으로 대표되는 경향에 따라 메이크업에서 최소화의 기법으로 순수한 이미지 표현 · 동양적 이미지를 연출한다.

1998년 봄 /여름(S/S)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세기말적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자기를 표출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메이크업에서 에스닉(Ethnic) 경향은 색상에 있어 올리브 브라운(olive-brown), 그린 베이지(green-beige), 핑크 베이지(pink-beige)로 현대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유럽스타일의 전통적 캐주얼웨어(Traditional Casual Wear)에서도, 현대적이고 정제된 단순한 이미지가 등장하여 미니멀적 네오 에콜로지라는 트렌디(trendy)한 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 로맨틱, 미니멀리즘, 에스닉 등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흐름은 로맨틱한 페미니즘이다. 이에 파스텔 색조, 분홍, 보라 등으로 관능적인 로맨티시즘을 표현한다.

21세기를 맞는 변화를 향한 출발의 시기인 1998년 가을 /겨울(F/W)에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여 인간의 감성에 관심을 갖는 시기였다. 장미빛 뺨을 강조하면서 홍조면 얼굴로써 이전과는 차별화된 엘레강스를 표현하였다. 또한, 글로시한 메이크업으로 세련됨과 화려(luxury)한 이미지로 확대되어진 현대적 감각안에

서의 차별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이미지는 색상, 눈썹, 아이라이너, 립라이너, 마스크라 등에서의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며 현대적인 미를 과사하였다.

1999년 S/S의 메이크업의 주된 주제는 균형의 미학이었다. 완벽성과 투명성, 편안함과 감각의 상반된 움직임의 균형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안정적인 미를 패션에서는 추구하여 이에 내추얼한 분홍빛 투명메이크업,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흰색을 주제로하는 미니멀리즘의 활성화와 아방가르드(Avant Garde) 이미지의 부각으로 메이크업에서도 아방가르드 이미지로 흰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뺨짜가루를 뿌려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타민족과의 혼합으로 문화적인 뿌리와 감정적인 전통 사이의 흔들리는 방향성을 1999년 F/W에는 빨강색(red)의 다양성으로 표출함에 따라 전 시즌의 얼은 색조의 입술보다는 매혹의 붉은 입술이 경향이 되고 있다. 여러 면에서의 융합(Fusion)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즉, 색상의 융합, 옛것과 현대적인 것의 융합, 자연과 기

술의 조화 등으로 히피, 보헤미안 룩 등이 테크노-에콜로지 성장 가속화로 인하여 패션과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분홍빛 파우더와 장미빛 분홍입술로 화사한 혈색을 표현하고, 우유색, 분색으로 가벼움과 투명함을 표현하고 있다.

인터페션플래닝, SK케미컬, 울마크컴퍼니 등 권위있는 패션연구기관의 경향 분석에 의하면, 대망의 세기말이자 21세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밝은 희망의 2000년 S/S에는 노랑색으로 낙관주의를 나타내고자 하며, 극도로 단순화되는 디자인의 상품 및 광고를 내어 놓아 즐거움(entertainment)을 추구할 것이라 한다. 또한 소재와 스타일, 색상 활용의 혁명을 통한 새로운 룩(Look)과 감성을 인체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의 관계에 집중하며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메이크업은 복합적인 컬러로서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이며, 다양하게 노랑을 액센트(accent) 혹은 솔리드(solid)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즌의 연속선상으로 분홍색 및 보라빛(violet)의 가벼운 볼터치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색상에서 따뜻함과 시원함의 양면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에서는 낙관주의가 주류를 이루며 내츨리리즘, 미니멀리즘이 메가 트렌드 경향을 띄고 있다. 오리엔탈리즘 경향으로 차이나 칼라, 기모노 슬리브, 여립 등의 디테일 사용이 두드러진다. 내츨리리즘과 미니멀리즘으로 대표되는 경향에 따라 메이크업에서 최소화 기법으로 순수한 이미지 표현 동양적 이미지를 연출한다.

동양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양적 느낌의 유형과 색상을 사용하는데, 붉은 색상으로 대표되는 동양풍의 메이크업이 주변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메이크업은 하얀 피부표현과 함께 검정 눈썹과 붉은 입술, 눈, 볼이 구조를 이루게 하는 것이 경향이다. 눈썹은 각없이 완만한 곡선으로 그리며 눈매는 비스듬하게 그린다. 눈화장의 색상은 동양의 느낌을 자아내는 황금빛, 노랑, 빨강 등이다. 입술은 짙은 빨강, 자주 등의 색상을 바른 후 윤기있게 처리해 준다.

IV.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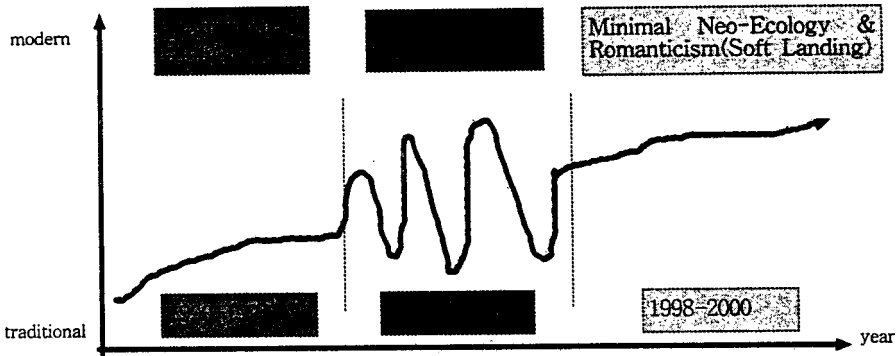
본 연구는 패션 경향과 메이크업 경향의 관련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1990년대 패션 및 메이크업 경향을 연도별, 계절별로 그 흐름을 분석하였다. 특히 패션과 메이크업에 영향을 주는 영감(inspiration)에 따른 관련성 및 그 흐름을 색상과 주제(이미지)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메이크업 경향은 전체적인 패션 경향의 흐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0년은 패션의 에콜로지 경향에 따라, 파스텔 색상과 갈색이 메이크업의 주조색이었다. 1991년은 빨강과 파랑으로 우아하면서도 이지적인 이미지, 도시적 여성의 세련됨, 자연스러움 속의 관능미와 화려함을 연출하였다. 1992년에는 '60~70년대의 복고풍 패션경향으로 밝은 난색 계열의 메이크업으로 '60년대의 생동감 및 환상적 분위기로 재현하였다.

1993년에는 여성적인 길고 가는 라인의 '40년대 스타일의 패션이 전개됨에 따라서 포도주색으로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1994년에는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동양적이고 민속적인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995년부터 색상에 있어서 계절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봄/여름에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위한 장미빛이 구조를 이루었으며 가을/겨울에는 진의 유행과 밀리터리 감각의 등장으로 다채로운 파랑색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1996년 봄/여름의 패션에서는 "유머, 아이러니, 현대주의"라는 3차원의 주제가 제안되었는데 메이크업에서는 달콤한 파스텔, 어두운 색조가 현대적으로 연출이 되었다. 또한 가을/겨울에는 '60년대의 만화 이미지와 순수와 유머의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메이크업에서는 바로크적 과장됨과 부르조아적 고급스러움을 필히 가미된 볼화장과 황금색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1997년 패션과 메이크업은 다양성을 나타내었는데, 비틀즈의 모즈룩을 재현, 퇴폐주의와 낭만주의에 따른 자주와 보라빛 메이크업이 유행되었다.

1998년에는 현대주의와 민속풍을 가미한 패션에 따라 메이크업에서는 분홍빛으로 로맨틱한 열



<그림 1> 연도별 패션과 메이크업 이미지 경향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도

레깅스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999년은 스포티함을 포함하는 자연적인 무드에 따라, 투명감있는 분홍빛 색으로 세련되면서도 소박한 메이크업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활기찬 희망을 바라보는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노랑색이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엑센트로 사용이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색감이 되돌아와 복합적인 컬러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풀 것이며, 인체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의 관계에 집중하는 패션 경향에 따라 최소한의 도구로 깔끔하고 귀족적으로 얼굴을 표현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경이 없어져 극적을 알 수 없는 퓨전(Fusion) 경향에 따라 동양적인 분위기에 서구 북유럽의 문화가 가미된 복합문화적인 메이크업이 독특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도된 3단계 시대구분(그림 1)으로 이미지 및 패션동향에 따라 1990년대를 1) 전통적 에콜로지(1990~1994) 2) 세기말적 다양성의 시도(1995~1997) 3) 미니멀적 네오에콜로지 및 로맨틱시즘으로의 연착륙(1998~2000)으로 분류하였다.

전통적 에콜로지 시대의 특징은 계절적인 차이가 거의 없었고, 에콜로지의 자연스러움을 주테마로 패션이 흐르며 메이크업 또한 이에 부응하고 있었다. 세기말적 다양성의 시대에는 계절차가 뚜렷이 드러남과 동시에, 에콜로지가 기본 철학에 바탕을 깔면서, 밀리터리(Military), 테크노(Techno), 모더니즘(Modernism), 바로크

(Baroque), 퇴폐적 이미지 등의 다양성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니멀적 네오에콜로지 및 로맨틱시즘으로의 연착륙(Soft Landing) 시대라고 명명된 1998년부터 2000년에는 에콜로지가 재두각 되었으며 계절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에콜로지는 1999년 현재에서 다시 강조되어지면서 2000년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올 뿐 아니라 가장 힘있는 이미지가 될 것이다. 계절이라는 변인으로 인하여 쓰이는 색상이 계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행색상은 1990년대 전반기에서보다 199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색상에 있어서 계절적인 차이가 뚜렷하여 짐을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세기말로 오면서 패션뿐 아니라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그 계절적인 차이가 희미해지고 대신 한 시즌에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공존되어 평균화를 이루고 있다. 20세기의 패션과 메이크업은 미니멀리즘과 로맨틱시즘으로 패션 및 메이크업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21세를 맞게 된다.

본 논문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시기에 한 세기를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도별, 시즌별 흐름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하여 여러 가지 더 다각적인 분야와 관련하여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0년대의 패션의 흐름과 메이크업의 경향 및 그 일치성을 디자인에 초점을 두어 더욱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1. 강병식, "토탈 패션으로써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2. 박정훈,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 안향신,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 상징에 관한 연구-1990년대 색채 경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4. 이윤주, "복식에 있어서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아르데코 시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5.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6. 김수진, 한명숙,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1호, pp.84-93, 1998.
7. 장미숙, 양숙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컷워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3호, pp.72-92, 1999
8. 최운학, 『The Best Make-up』, Teruko Kobayashi., 서울:유신문화사, 1996.
9. Jackson, C., 『Make-up Book』,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7.
10. Jewell, D. L., 『Making Up by REX』, New York:Clarkson Potter Publish Company, 1986.
11. Miller, C., 『8 Minute Makeovers』, Washington D. C.:Acropolis Books LTD, 1984.
12. Lakoff, R. T. & Scherr, R. L., 『Face Value-The Politics of Beauty』, New York:Rouledge & Kegan Paul, 1984.
13. Thompson, J., 『Image Impact』, New York: A&W Publish Inc., 1981.
14. 삼성패션연구원 트렌드 발표회 자료
15. 인터패션플래닝 트렌드 발표회 자료
16. (주)섬유저널.섬유저널.서울:(주)섬유저널 (1990. 1,3,4,5,11,12, 1991. 4,5,10,11, 1992. 1,5,6,11, 1993. 1,3,5,8,11, 1994. 1,2,4,5,6,8, 1995. 2,5,8,10,12, 1996. 3 1997.4).
17. (주)패션정보사. 패션투데이. 서울 (주) 패션정보사 (1992. 10, 1994. 10, 1995. 3,4,7,10, 1996. 3,4).
18. (주)패션리더사. 패션리더. 서울 (주)패션리더사(1996. 5,11, 1997. 9).
19. ELLE Korea, (1990. 1월호~1999. 10월호).
20. ELLE France, (1991. 10,11).
21. Vogue U.S.A., (1990. Jan.~1999. Oct.).
22. Mademoiselle U.S.A., (1996. 8, 1997. 7,8).
23. Harper's Bazaar Korea, (1998. 10, 1999. 6).
24. Book Moda Collezioni, (1990 S/S~1999 F/W)